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2부 · 소극적 표지 1: 감정의 강도 (2부 머리말 포함)

『신앙감정론』 제2부 머리말과 첫 번째 소극적 표지(감정의 강도), 인쇄 189~198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1부에서 “참된 믿음은 감정에 크게 자리한다”고 밝혔습니다. 2부는 바로 그 결론을 오해하지 말라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감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감정을 통째로 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은 감정의 두 종류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2부)와 판단 근거가 되는 표지(3부)를 차례로 제시하겠다고 밝힙니다. 첫 번째 소극적 표지는 '감정의 강도'입니다. 그는 먼저 성경과 성도들과 천국의 예를 들어, 감정이 높다고 해서 가짜라는 증거는 아니라고 증명합니다. 이어 갈라디아 교인, 출애굽 세대, 호산나를 외친 무리를 들어, 감정이 높다고 해서 진짜라는 증거도 아니라고 보여 줍니다. 강도는 어느 쪽으로도 판정해 주지 못합니다.

🪪 표지 카드

표지 1(소극): 신앙감정이 아주 크거나 높이 솟구쳤다는 사실은 진짜라는 증거도, 가짜라는 증거도 되지 못한다.

참된 믿음이 강한 곳에서는 감정도 당연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은 오히려 최상급의 감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뜨겁다는 이유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크게 감동했다가 금세 사라진 사람들의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 뜨겁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의 '종류(본질)'를 보아야 합니다.

📜 절별 정리

📜 1. 2부 머리말: 감정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

1부를 읽은 누군가가 “나는 감정 없는 사람이 아니야. 신앙의 일들을 생각하면 자주 크게 감동받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그런 사람에게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1부에서 '감정을 전부 거부하는 잘못'을 막았다면, 이제는 '감정을 전부 승인하는 잘못'을 막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 참된 은혜를 받았고,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역사 아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길은 신앙감정 가운데 두 종류를 구별해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두 가지 작업을 예고합니다. 첫째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을 밝혀 잘못된 잣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2부). 둘째는 영적이고 은혜로운 감정을 그렇지 않은 감정과 구별하는 참된 표지들을 밝히는 것입니다(3부).

1. 감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
2. 모든 감정 거부도, 모든 감정 승인도 잘못
3. 할 일은 감정의 두 종류를 구별하는 것
4. 2부는 '증거가 못 되는 표지'
5. 3부는 '증거가 되는 표지'

> **베드로전서 1:8**
> 1부의 출발 본문. 참된 믿음은 감정(사랑과 기쁨)으로 드러난다는 전제
>
>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 **요한일서 4:1**
> (참고: 이 대목에서 에드워즈가 직접 인용하지는 않음) '분별'이라는 2부 전체의 과제와 같은 정신
>
>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 2. 명제와 첫 번째 반대자: "지나친 감정은 다 가짜"라는 사람들

명제는 이렇습니다. 감정이 매우 크게 발휘되거나 높이 고양되는 것 자체는 은혜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할 표지가 아닙니다. 먼저 상대할 사람들은 도를 넘는 듯한 감정을 보면 더 살펴보지도 않고 기만이라고 단정하는 이들입니다. 에드워즈의 반박은 단순한 추론입니다. 참된 믿음이 감정과 밀접하게 묶여 있다면, 믿음이 강한 곳에서는 감정도 크게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사랑도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너무 깊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죄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너무 감사하지 말라고, 거룩함을 너무 갈망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반대로 독생자를 내주신 사랑을 듣고 “이제 충분히 감동받았으니 더 감동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열광주의자가 되지 않게 제 감정이 지나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감정의 '양'을 문제 삼는 태도 자체가 모순임을 드러냅니다.

1. 강도 자체는 판단 근거가 아니다
2. 지나치면 가짜라는 선입견을 비판
3. 믿음이 강하면 감정도 강해진다
4. 하나님을 너무 사랑할 수는 없다
5. 감정을 줄여 달라는 기도는 불가능

> **베드로전서 1:8**
> “위에서 검증한” 전제. 믿음과 감정은 하나로 묶여 있음
>
>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 **요한복음 3:16**
> (암시)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 사랑 앞에서 '충분한 감동'은 없음
>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참된 믿음이 높이 고양되면, 신령하고 거룩한 감정 역시 고양될 것이다.”

📜 3. 성경은 최상급의 감정을 말하고 요구한다

에드워즈는 이제 성경을 증거로 듭니다. 1부의 본문 베드로전서 1:8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언어가 낼 수 있는 최상급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높은 감정을 그저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그 정도를 다 담을 수 없다는 듯이 표현을 거듭 쌓아 올립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뛰놀라, 기뻐 외치라고 거듭 요구합니다. 또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일을 선포하라고 자주 명령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감정의 '크기'를 지나치다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절의 요점입니다.

1. 성경은 최상급 언어로 기쁨을 말한다
2. 큰 계명 자체가 '전부 다'를 요구
3. 크게 기뻐하고 뛰놀라고 명령한다
4. 마음을 다한 감사와 찬양을 요구
5. 성경이 명한 크기를 정죄할 수 없다

> **베드로전서 1:8**
>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최상급으로 표현된 높은 감정
>
>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랑의 계명이 '다하여'를 네 번 반복. 최대치의 감정을 요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태복음 5:12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명하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23

“기뻐하고 뛰놀라”. 몸으로 드러날 만큼 큰 기쁨을 요구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시편 68:3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라. 구약도 같은 요구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 4. 가장 탁월한 성도들의 감정: 시편 기자, 바울, 무덤의 여인들

성경은 명령만 하지 않고, 가장 탁월한 성도들이 실제로 그런 감정을 겪었다고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말로 다 못 할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할 만큼 죄를 혐오합니다. 자기 죄가 머리 위에 넘쳐 무거운 짐 같다고,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른 것 같다고 고통을 토로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남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며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며 기쁨에 넘쳐 노래합니다. 바울도 다른 이들을 향한 동정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는 불타는 사랑과 갈망, 넘치는 기쁨, 풍성한 눈물, 경건한 질투와 열정을 거리낌 없이 드러냅니다. 부활하신

1. 성경의 모범 신자들은 감정이 컸다
2. 사랑·미움·슬픔·갈망·기쁨 모두 최대치
3. 남의 죄 때문에 우는 슬픔도 있다
4. 바울도 눈물·고통·열정을 드러냄
5. 부활 앞의 여인들: 무서움과 큰 기쁨

시편 119:97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말로 다 못 할 사랑

>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39:21~22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함. 죄를 향한 깊은 혐오

> 2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22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시편 38:4

죄악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음. 죄 때문에 겪는 깊은 고통

>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 42:1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가장 강한 표현으로 드러낸 영적 갈망

>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119:136

남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름. 타인의 죄를 향한 슬픔

시편 63:3~5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 넘치는 기쁨과 찬양

[3]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마태복음 28:8

무덤의 여인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 부활 앞에서 고조된 감정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 5. 장차 올 교회의 기쁨과 천국의 감정, 그리고 중간 결론

성경은 장차 땅 위에 복된 때가 오면 교회가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거듭 예언합니다. 천사는 복음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불렀습니다. 큰 기쁨은 복음이 낳는 당연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가장 완전한 경건을 지닌 천국의 성도들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볼 때 하늘의 순수한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그들의 찬양은 많은 물소리와 큰 천둥소리 같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땅의 성도보다 높은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대상을 더 참되게 보고, 감정을 그 대상의 본질에 더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감정이 천국의 감정과 같은 '종류'라면, 높을수록 천국에 더 가깝고 더 좋은 것입니다. 중간 결론은 이렇습니다. 감정이 높다는 것은 가짜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이 고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열광주의자로 정죄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1. 복음의 당연한 열매는 큰 기쁨
2. 천국의 찬양은 물소리·천둥소리 같다
3. 천국 감정이 높은 이유는 더 참되게 봄

시편 89:15~16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 종일 기뻐함. 장차 올 교회의 큰 기쁨

15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16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스가랴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메시아 시대에 예언된 큰 기쁨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누가복음 2:10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이 복음의 본래 열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요한계시록 19:6

많은 물소리, 큰 천둥소리 같은 찬양. 천국 감정의 크기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요한계시록 14:2

하늘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큰 천둥 같음. 같은 이미지의 반복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제 에드워즈는 저울의 반대편으로 갑니다. 영적인 일을 판단하는 확실하고 오류 없는 기준인 성경은, 아주 높이 고양되었지만 영적이지도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못하는 감정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첫째 예는 갈라디아 교인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 주었을 만큼 바울을 향한 감정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자기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둘째 예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크게 감격해 찬송했지만 곧 하나님의 일을 잊었습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크게 감동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라고 당당하게 서약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송아지 주위를 돌며 즐거워하고 소리쳤습니다. 뜨거움은 같아 보였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1. 성경은 높지만 헛된 감정이 있다고 함
2. 갈라디아: 눈이라도 빼 줄 듯하다 식음
3. 홍해의 찬송 뒤 곧 잊어버림
4. 시내산의 서약 뒤 금송아지
5. 뜨거움과 열매는 별개일 수 있다

> **갈라디아서 4:15**
> 눈이라도 빼 주려던 뜨거움. 그러나 그 복은 어디 갔는가
>
>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 **갈라디아서 4:11**
> 바울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움. 고조된 감정이 열매 없이 끝날 수 있음
>
>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 **출애굽기 15:1**
> 홍해를 건넌 뒤 부른 찬송. 크게 감화된 감정
>
>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시편 106:12~13

노래로 찬송했으나 곧 그의 일을 잊음. 감격이 금세 사라짐

12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13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24:3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당당하지만 오래가지 못한 서약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32:19

금송아지 앞의 춤과 소리. 같은 백성이 다른 대상 앞에서 열광함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 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 7.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 그리고 정통의 일치된 견해

가장 극적인 예는 예루살렘 입성 때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예수님의 나귀가 밟기에 부족하다는 듯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길에 폈고, “호산나”를 외쳐 온 성을 들끓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저를 좇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 참된 제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열광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조롱받고 채찍질당하고 정죄받으셨을 때 사그라졌습니다. 무리는 다시 크게 외쳤지만, 이번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다른 종류의 외침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것이 자기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신앙감정이 아주 높이 고양되어도 참된 신앙과 전혀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정통 신학자의 일치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1. 기적에 감동한 무리의 호산나

3. 고난 앞에서 열광은 사그라졌다
4. 같은 입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5. 정통 신학자들의 일치된 견해

요한복음 12:18

무리가 맞으러 나온 이유는 나사로의 기적. 감정의 출처가 기적의 흥분이었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마태복음 21:8~9

겉옷과 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를 외침. 극도로 고조된 감정

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10

온 성이 소동함. 공동체 전체를 휩쓴 열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요한복음 12:19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겉으로는 대성공처럼 보인 반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누가복음 23:21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은 무리의 다른 종류의 외침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것은 '호산나, 호산나' 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는 외침이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며 끌리고 밀어내는 영혼의 강하고 생생한 움직임입니다. 사랑, 미움, 기쁨, 슬픔, 갈망 같은 것으로, 순간적 기분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기울어짐을 뜻합니다.

신앙감정
하나님, 죄, 구원 같은 믿음의 일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은혜로운(영적) 감정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생긴,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유한 참된 감정입니다.

표지(sign)
어떤 감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게 해 주는 '표시', 곧 판단의 근거입니다.

소극적 표지 / 적극적 표지
소극적 표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정해 주지 못하는 표시(2부)이고, 적극적 표지는 참된 은혜를 가려 주는 표시(3부)입니다.

고양(고조)
감정이 높이, 강하게 솟구치는 상태입니다.

열광주의자
감정적 흥분이나 체험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며 들뜬 신앙에 빠진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실제로 거듭나게 하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일입니다. 잠깐 감동시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통 신학자
성경에 충실한 역사적 개신교 신앙을 대표해 온 신학자들입니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감정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감정의 두 종류를 구별해야 합니다.
- 참된 믿음이 강하면 감정도 강합니다. 성경과 성도와 천국이 그 증거이니, 높은 감정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 그러나 높은 감정이 헛것으로 끝난 예가 성경에 분명하니, 높은 감정으로 안심하지도 마십시오.
- 감정의 강도는 어느 쪽으로도 판정해 주지 않습니다. 물어야 할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떤 종류'입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5편 · 뜨겁다고 진짜는 아니다 · 강도와 몸의 반응 (표지 1·2) (준비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